

사찰음식 활성화 위한 학술·경연대회 열린다

웰빙 음식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찰음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6월 동안 진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6월 8일 오후 1시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사찰음식의 문화관광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기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적문 스님, 금당사찰음식문화원 대안 스님, 주영하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장병주 영산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들은 종교음식의 관광자원 현황과 사찰음식의 상품 가능성에 대해 진단할 예정이다. 6월 6일부터 9일까지는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2013 사찰음식 대축제'가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하는 이번 축제에는 종단 최초로 시행되는 사찰음식 경연행사도 함께 마련돼 눈길을 끈다. 경연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며 입상자는 소정의 상금과 상패와 향후 언론 및 방송 홍보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사찰음식 원형전, 사진전 등 전시와 명인 강좌, 체험 부스,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상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조계종 제5교구본사범주사(주지 현조)는 6월 2일 경내 범종각 앞에서 '2013 사찰 음식과 세계음식의 만남 -百味百樂 음식 대전'을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불영사 여공 스님의 사찰음식 시연과 베트남, 일본 태국 등 세계음식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전쟁 위협 없어야 한반도 경제 번영”

불교생명윤리학, 세미나 개최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불교생명윤리학회(공동대표 범응스님 박광사)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이도훈)는 5월 24일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은 기조발제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과 공동번영의 기초"이라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분쟁의 현실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제2의 경제도약을 가능케 하는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비인가 군종, 출가 재원으로

출가특위 회의 지적... 청소년·군종병 출가 학교 추진

일선 대대, 종대 급에서 활동하는 비인가 군종병을 포교와 출가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일관)는 5월 22일 3차 회의를 열고 단기 출가학교와 군포교 내에서의 출가 인원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입문교육 담당 은산 스님(행복한 절 주지),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학감 범철 스님, 8사단 팔정사 군법사 지용 스님이 참석해 출가자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법사 지용 스님은 군종병들을 출가로 이끌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군종병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스님은 "13년간 군법사 소임을 맡아왔지만 (반어심경)을 외우는 장병은 10명이 채 안된다"며 "대부분의 장병들은 불자라고 해도 불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군종병은 일반 사병과 달리 군법사와 가깝게 생활하며 불교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가지게 될 경우가 많다는 게 지용 스님의 설명이다.

특히 스님은 사단급 인가 군종병이 아닌 대대급 이하 비인가 군종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용 스님은 "비인가군종병은 집전 실력도 뛰어나고 신심도 깊다. 종단이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교육을 진행한다면 출가로 유

지용 스님 "신병 불교 인식 무"

군포교 환경 개선 필요 '공감'

출가학교 중회 예산 상정 결의

도할 수 있다"며 "교구본사나 지역사찰에서 군종병 대상 템플스테이를 하고 교육을 시킨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 범인스님은 "군단 별로 군종병 교육을 실시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이들에 대한 정책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종회의원 장적 스님도 "군법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군종병들을 출가수행자로 이끄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교육원 차원에서 군종병 지원자들을 교육시킨 뒤 군법당으로 파견하는 절차가 있다면 젊은 출가자 양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특위위원들은 청소년과 군종병 대상 출가예비학교를 추진해 출가자 확대를 추진키로 결의했다.

교육원에서 출가예비학교 관련 법과 제도, 예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7월경 4차 회의를 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는데 또한 이르면 오는 하반기 중앙종회에 예산을 상정해 내년부터 청소년과 군종병 출가예비학교를 시행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철 스님이 단기출가학교 현황과 이에 대한 출가 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행사교육 담당 은산 스님은 행사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이밖에 포교원 포교부장 송목 스님은 스님들의 유발상좌 제도, 영유아 수계제도와 연계한 장학프로그램을 지속시켜 예비출가자를 육성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진각종은 5월 21일 21대 총무원장 회정정사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바르고, 즐거운 신행 문화 키우겠다”

5월 21일 진각종 제29대 회정 총무원장 취임법회

진각종 제29대 총무원장 회정 정사 취임법회가 5월 21일 낮 12시 서울 성북동 내 진각문화전승관에서 봉행됐다.

회정 신임 총무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종교의 교화법은 진언수행자로 하여금 심인을 깨치도록 교화해 인과를 내증하고 방체설법을 받게 하여서 홀로 어두운 곳에 있더라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실천하게 하는 실천법"이라며 "재입기간동안

종교의 가르침을 계승해 누구나 다 진각심인을 구축한 부처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진각 문화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회계위원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천대총 총무부장 월도 스님, 주호영·김장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계륜 민주당 국회의원, 서남수 교육부장관,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청년들 사찰서 출가의 길을 묻다

조계종 교육원, 6월 30일부터 2기 청년출가학교

이 시대 청년들에게 대안적 삶으로 출가를 권선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한 두 번째 청년출가학교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해남 미항사에서 제2기 청년출가학교를 개설한다.

학교장인 범인스님(교육원 교육부장)과 금강스님(미항사 주지) 가섭스님(교육원 교육국장) 원영스님(조계종 교수사서)이 지도법사를 맡아 8박9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참가자들이 이를 예정이다.

지도교수로는 도법스님(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추진본부장) 정목스님(유나방송 진행자) 조한혜정 교수(연세대) 조성택 교수(고려대) 강신주 박사(철학자)가 참여해 대안적 삶으로서의 불교에 대해 강의를 펼친다.

참가를 원하는 20대 청년은 6월 23일까지 입교지원서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남녀 40명을 선발하게 된다. 참가비는 9만원이다. (02)2011-1812 신종일 기자

노동자,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

시설 노동자 초청 법회

매일 찾차를 타고 출근해 청소와 경비 업무를 진행하는 시설 노동자들. 이들을 사회에서는 '유령'이라고 부른다. 가장 낮은 곳에서 고달픈 시설 노동자들을 위한 위로하기 위한 법회가 열렸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는 5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노동자와 함께하는 동사설 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노동자 초청 형식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청소, 경비, 주차 등 시설 노동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증명법사로 나선 前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법문을 통해 "한국 사회는 정치권과 경제계 모두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벌은 수 조원을 은행에 유류자금으로 예치하면서 부당해고자, 비정규직을 양산해 내고 있다. 사람을 떠난 성장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스님은 "자기 생각만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하니까 문제가 있다"며 "삶이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귀하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5월 23일 시설 노동자 초청 동사설 법회를 봉행했다.

고 맑고 깨끗한 쪽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라. 이것이야말로 사립다운 모습이고 사람다운 정신이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다주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고 노동자들을 위로했다.

이에 앞서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유마경)에는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라는 경구가 있다. 노동자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법회를 열었다"며 "모든 문제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이제

는 정부, 회사가 욕심을 내려놓고 공동체적 삶을 위한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회 이후에는 총무원 지하식당에서 법사 청화 스님,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을 비롯한 노동위원 스님들과 시설 노동자들이 함께 저녁 공양을 함께 했다.

글=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관련 법문 8면

조계종 원로, 서암 前 종정 명예회복 나서

총무원에 청원서 제출

조계종 전 종정 서암 스님이 1994년 종단개혁 당시 불신임이 아닌 스스로 종정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은 비롯해 9명의 원로의원 스님들은 5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원로의회의 서암 전 종정 스님 불신임 결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날 원로 스님들은 서암 스님의 승적 역시 박탈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원로의원 스님들은 총무부 등을 통해

서암 스님이 승려대회 전 탈종의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이후 후속조치를 받지 않아 승적이 유지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밀운 스님은 "원로의회의 회의록과 총무원 승적부, 회계원 징계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서암 스님이 불신임으로 종정에서 물러났거나 체탈도첩 또는 벌민 등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많은 종도들이 서암 스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 일평생 수행으로 정진하신 스님의 명예에 누가 되고 있다"고 서암 스님에 대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종일 기자

(주)에스큐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아시아나항공(OZ) 수요일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품격 99만원**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품격 119만원**
- 대한항공 / 아시아나 항공 미얀마 직항 성지순례
 - 황금바위 짜익티오 미얀마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몽유와 / 만달레이 / 헤호 7일 **요금문의**
 - (110미터 와불과 38층높이 입불이 모셔진 몽유와 일정)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헤거 두손모음

부산 출발 성지순례

- 양곤 (베트남항공, 타이항공 출발)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태국 5일 **요금문의**
-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4일 **요금문의**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19만원**
- 대만 5일 **11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전문가이드동행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 + 기사, 각종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여행자보험가입